

이창순 작가 그림책 '깜장미르' 출간

자신의 정체성 찾아가는 동화... '용머리고개' 관한 '강감찬 장군의 설화' 서 영감 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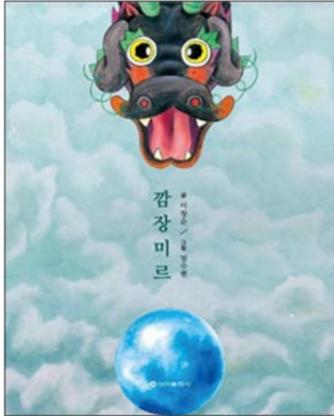
이창순 작가가 그림책 '깜장미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화로,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아 최후우뚱하며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이야기다.

작가에 따르면 이 책은 '용은 왜 초립동으로 둔갑해 내를 간신히일까?'라는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전주역사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용머리고개'에 관한 '강감찬 장군의 설화'를 바탕으로 쓴 '깜장미르'는 아이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줄 것이다. 깜장미르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땅에 내려왔는지, 여의주를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고,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림책이다.

깜장미르는 승천하다 여의주를 떨어뜨린다.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느라 물고기들을 괴롭히고 뱃물을 다 마셔버린다. 깜장미르는 결이 여의주를 주워잡는 말을 듣고 초립동으로 둔갑해 결이를 찾아가다. 여의주를 찾아 신이 난 깜장미르는 짐장대리를 건너는데 이방을 만나는데...

누구나 처음은 어설피다. 그래도 괜찮다. 어설피기에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며 성장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초등학교 가는 길이



이창순 작가가 그림책 '깜장미르'를 출간했다.

참 멀었다. 들관에서 여름에는 땀방울, 겨울엔 매서운 바람을 고스란히 안고 다녔다. 소달구지를 만나면 어찌나 반갑던지 울망쫄망 끼어 타기만 해도 그날은 재수 좋은 날이었다. 그 먼 길을 참 재미나게 다녔다. 길동무 해준 이야기보따리 언니가 있어서다. 언니는 옛날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해줬다. 길을

걸는 것, 그것은 이야기를 따라 가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깜장미르'는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전주의 한 지명인 '용머리고개'에 대해 소개된 설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누구나 처음은 어설피다. 깜장미르도 자꾸 여의주를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는 과정에서 물고기들을 괴롭히지만 결이의 목숨을 살리고, 원념에 의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순 작가는 "제가 초등학교를 오가는 길에 이야기와 함께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창순 작가는 아동복 교사로 일하며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특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1회 전주 원천스토리 파장대회에서 동화 '깜장미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시 먹는 달팽이'에 동시를 발표했으며 동시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공저)가 있다. 2020년 '소년문학'에 동시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북동시읽는모임', '전북이동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7월 9일 아름다운 명품 코믹 발레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번째 이야기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를 선보인다.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는 운동선수, 소방관, 군인, 요리사, 우체부, 청소부, 패션디자이너 등 33개 다양한 직업들의 묘사를 춤과 음악으로 휴머니즘을 담아 표현한 코믹하면서도 감동을 자아내는 명품 발레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 사회를 대표하는 직업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사회적 리더를 상징하는 지휘자의 지휘 아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발레라는 장르에 성악가의 노래와 피아노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진단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6월 29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연극배우 박정자 국악양상블 놀음관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스넵은 대한민국의 예술인으로서 활동 중인 연극계의 거장 명품배우 박정자(사진)가 출연해 '60년 연극 인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1962년 처음 연극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무대에 서고 있는 80세 배우 박정자의 열정과 여전히 진행 중인 그녀의 연극인생을 만나보고, 동아방송 성우 시절 이야기, 최근 공연한 작품 '해롤드와 모드' 관련 에피소드, 국악과 함께 한 연극 작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장 시절의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진행,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곤충과 함께하는 나만의 텃밭 가꾸기'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은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곤충과 함께하는 나만의 텃밭 가꾸기'

라는 주제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 캠퍼스 텃밭과 자연사박물관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시덕진구

어린이급식센터가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는 텃밭에서 자라는 가지, 토마토, 배추 등 채소를 관찰하고, 자연사박물관에서 곤충과 먹이 등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교육활동 후에는 곤충의 다리, 날개, 눈 등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나비의 한살이 자식붙이기, 곤충 표본 만져보기, 천연기념물 퍼즐 맞추기, 멸종 위기종 그리기 등 다양한 놀이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체험객들에게 곤충뿐만 아니라 독수리,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 올빼미 등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동물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진호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이 도심 속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꼼꼼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학예실(063-219-5449)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체험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농악축제' 26일 익산보석박물관 광장서 개최

익산시가 우리나라의 흥겨운 전통 민속예술인 농악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된다.

시는 오는 26일 익산보석박물관 광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16회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포놀이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한 특징을 지닌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경쾌하고 빠른 가락이 특징인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등을 선보인다. 또한 ▲가락의 가립새가 분명하며 무동놀이가 발달한 '평택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가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며 개개의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임실필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다. 이밖에도 행사 전날인 25일 오후 7시에는 제3회 이리농악 정기발표공연인 '관원GO 두드리다'가 열린다.

해당 공연은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에서 이리농악 공연과 함께 군산노이의 진법과 소고수들의 무예적인 몸짓이 특징인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의 초청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악은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 민속예술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늘 함께하며 지역마다 고유의 색깔을 지닌 특징이 있다.

이처럼 농악은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동체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